

연구논문

재무비율로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윤지 · 최현자*
농촌생활연구소 가정경영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Factors Affecting Financial Status of the Rural Middle-aged and Old-aged Households

Choi, Yun-Ji · Choe, Hyuncha*

Dept. of Home management,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status of the rural middle-aged and old-aged househol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influenced on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security measured by consumption to income ratio were sex and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 head, family size, total income, total expenditure and total asset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security measured by liquidity ratio was liquid assets, and total assets.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 head, liquid assets, total assets, and total deb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security estimated by debt burden ratio. Among the economic variables, only liquid asset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security assessed by the capital stock ratio.

Key Words : financial ratios, financial status of the rural household,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I. 서론

농촌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이농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농촌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군부 인구중 노인(60세이상)인구의 비율이 1960년의 6.8%에서 1995년의 18.2%로 급증한 반면 도시의 경우 1960년의 4.1%에서 1995년 7.1%로 점차 증가

하였다(통계청, 1995). 이러한 농촌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은 노인 가계의 경제적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로 나타나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세대의 노인들은 공적 노후소득 보장방안인 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노후생활준비도 전혀 해 놓고 있지 않은 비율이 84.9%나 되고 있다(정명채, 1996). 농촌가계의 경우 중년기에 저소득과 자녀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노후준비를 위한 부(wealth)의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득의 불안정성과 비유동적인 자산구조 및 가계관리의 비효율성 등 또한 노후준비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농가의 재정적 안정(financial security)을 이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안정이란 재정적인 요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편안한 상태로서(Garman & Forgue, 1994)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가 지닌 재정적 문제를 규명하는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는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구조나 가계의 순자산 규모로 재정상태를 측정하였다(Prather, 1990; 성영애·양세정, 1997; 최현자, 1996; 민재성, 1993). 그러나 이 방법은 가계 자산구조의 균형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개별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재정상태 측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을 통해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이다. 양정선(1997)도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은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 보다는 상대적 비율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국내연구로는 양정선(1997)과 김연정(1998)의 연구가 있지만 모두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자산구조 등에서 도시가계와 그 특성이 다른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가계를 중·노년기 가계로 나누어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통해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농촌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 농촌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가계 재무관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 생활지도사들에게는 농가를 위한 재무설계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재무비율의 개념과 종류

재무비율이란 재무상담과 재무계획시에 가계 진단과 정보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의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 능력의 평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이다. 이는 가계로 하여금 재정목표의 도달에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특정 가계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목적에도 적절하다(DeVaney, 1993).

재무비율을 가계에 적용할 수 있게 제시한 사람은 Griffith(1985)이며, 이것을 Prather(1990)가 실증연구에 적용하였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분석은 순자산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용이하며(Prather, 1990),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양정선, 1997)이라고 하였다.

재무비율은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 가계의 포괄적인 재정상태와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Quinn, 1987; Radner, 1992에서 재인용)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Garman과 Forgue(1994)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총부채 대 총자산, 연간 부채상환액 대 총소득, 연간부채상환액 대 연간 가처분 소득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가계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포괄할 수 있는 비율로 유동(금융)자산 대 월평균지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같은 적절한 유동성은 일시적인 화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가계를 보호하며 유

동성 비율은 유동성 문제를 경고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보통 가계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총부채도 증가하는데 적절한 양의 부채는 필요하지만 과도해서는 안된다. 이 때 과도(excessive)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한 자산과 소득에 기초한 비율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Langrehr와 Langrehr(1989)는 잔여소득(residual income) 개념에 의한 부채부담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잔여소득 비율을 사용하였다. 잔여소득 비율이란 가처분소득(take-home pay)에서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임의적 지출을 차감한데서 매달 부채상환액을 더한 것에 대한 매월 부채상환금액의 비율이다. 필수·임의 지출을 고려한 이유는 식품구입이나 편의시설이용, 교통시설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fund)을 결정할 때는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잔여소득비율의 사용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riffith(1985), Lytton, Garman과 Porter(1991), DeVaney(1993, 1994)가 제시한 재무비율 및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재무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고 이들의 준거기준을 기초로 재정상태를 평가하였다.

2.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요인별로

< 표 1 >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재무비율의 종류와 개념 및 준거기준

재무비율		개 념	준거기준
소득대비 소비비율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	1.0미만
유동성 비율	Ratio 2) 유동자산/월지출액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 평균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3.0초과
	Ratio 3)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유동성 비율	0.25초과
	Ratio 4) 유동자산/순자산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 재정목표 평가시 필요함	0.25초과
부 채 부 담 비 율	Ratio 5)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냄	0.1초과
	Ratio 6) 총부채/순자산	순자산의 가치에 대한 총부채의 관계로 가계의 부채지위를 평가	1.0미만
	Ratio 7) 실물자산/총부채	실물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냄	1.0초과
자 본 축 적 비 율	Ratio 8) 투자자산/순자산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0.2초과
	Ratio 9)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가계의 저축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0.1초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이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Radner(1987)는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포물선형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통계청(1995)의 보고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과 총지출이 증가하다가 55세 이상의 노인가계에서 다시 감소한다고 하였다. Griffith(1985), Mason과 Griffith(1988)는 재무비율의 분석시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Prather(1990)도 개별가계의 재정상태 분석·평가 시에는 연령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 중 Marlowe와 Godwin(1988)는 농가 가계의 부채/자산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인적자본 변수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Yu(1993)는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전체 부채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동시에 전체 자산량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Bryant(1986)는 결혼한 부부와 여성가구주 가계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 가계의 경우가 순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득은 결혼한 부부의 1/3수준이었다. 자산과 부채 불균형 상태의 조정을 또한 상대적인 저소득과 신용시장 및 주거소유에서의 차별로 인해 조정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Yu(1993)의 부채부담연구에서는 남성 가구주 가계의 부채부담이 여성 가구주 가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Hira(1990)와 Yu(1993)가 부채부담을 연구한 결과들에서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부채부담이 커진다고 하였다. Wasberg, Hira와 Fanslow(1992)는 한 시점에서 저량의 관점에서 부채수요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가구원수는 담보부채보유액과 소비자부채액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수준 또한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Bryant(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현재의 가계소득이 자산과 부채보유에 가장 파급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포트폴리

오 항목에 미친 단기의 소득 효과는 가족 유형과 인종에 관계없이 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Prather(1990)는 재정상태 파악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연령과 소득을 들었다. 그는 유동자산과 부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비율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기타 재정자산/총부채, 유동자산/비담보부채와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중간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동자산과 재정자산/순자산의 비율에서는 유동자산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소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순자산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의 처음 단계에서는 증가하지만 은퇴기에는 크게 감소하므로 연령보다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생활표준의 유지 관점에서 볼 때 가계는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일 것이며(심영, 1993) 이러한 가계지출은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가계의 총자산 수준이나 유동자산 및 부채 등도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서 Hefferan(1982), 김순미(1987)는 총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순자산도 증가한다고 했다. 이러한 순자산의 증가는 가계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유동자산)은 부채보유 확률과 부채보유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영애·양세정, 1995). 그러나 Sullivan과 Worden(1986)은 부채부담의 경우 저소득층과 무주택가구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유동자산 규모와 부채부담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박재윤(1978)과 배무기(1978)의 연구에서는 부채수준이 저축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영숙(1994)의 연구에서는 부채액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안정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자경(1991)의 연구는 부채수준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농가의 경우 소비성부채와 농업생산을 위한 부채의 공존으로 토지나 농기계의 구입을 위한 부채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과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재정상태는 가구주 연령 및 가정생활주기,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가족수, 가계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이들 변수를 포함하는 실증분석모형을 수립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무비율에 따라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 표 1 >에 제시한 재무비율에 따라 농촌 중·노년기 가계 재정상태의 건전성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증모형을 설정하였다.

$$HFS_{it} = \beta_0 + \sum \beta_1 HC_{jt} + \sum \beta_k HEV_{kt} + e_{it} \dots\dots\dots (1)$$

HFS_{it} 는 i 번째 재무비율(i 는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및 자본축적비율을 의미함)로 측정된 h 번째 가계의 재정상태로서 제시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할 경우 0의 값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HC_{jt} 는 h 번째 가계의 j 번째 사회인구학적특성으로 j 는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및 가정생활주기(중·노년기)이며 HEV_{kt} 는 h 번째 가계의 k 번째 경제적특성으로 k 는 가계소득, 가계소비지출, 총자산, 유동자산 및 부채이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본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 표 2 >와 같다.

< 표 2 >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가정생활주기	중년기 (=0) : 가구주 연령이 40~59세인 가계 노년기 (=1) :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
총 소 득	농업소득+농외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
유동자산	현금+예·적금+대부금 +보험금+계
투자자산	유동자산 - 현금 보유액
총 자 산	주택 및 건물+토지+농기계+재고농산물+유동자산+투자자산의 합으로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농가 소유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
총 부 채	각종 은행 대부금+의상 및 할부금+사채+불입해야 할 계돈+기타 부채의 총합
순 자 산	총자산 - 총부채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와 농촌진흥청이 1996년과 1997년에 실시한 농촌 가계의 경제문제와 안정도에 관한 연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48개군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자 대상자중 특히 중년기에 처한 농가(166가구)와 노년기(711가구)에 있는 농가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5.0을 이용하였으며 재무비율을 통해 측정된 농가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짓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중년기 가계와 노년기 가계로 나누어 살펴본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주 성별은 중년기의 경우 93.4%가 남성가구주인 반면 노년기에는 63.7%로 나타났

다. 가구주 연령은 중년기에서는 40대 (48.8%)와 50대 (51.2%)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노년기 가구에서는 60대 (48.7%), 70대 (38.7%), 80대 (12.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노년기가계에 비해 노년기가계가 더 높아 노년기의 경우 88.8%가 초등졸 이하인 반면 중년기가계에서는 초등졸이하가 40%, 중등졸이하가 37.6% 그리고 고졸이상도 22.4%나 되었다. 동거가족수의 경우 중년기 가계에서는 3~4명 (42.8%)이 가장 많았으며 5~6명인 가계도 31.9%나 되는 반면 노년기 가계에서는 60.4%가 2인 이하로 노인부부 혹은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수준의 경우 중년기에서는 호당 연평균 2,

042만원 (월평균 1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가계는 1,134만원 (월평균 94만원)으로 중년기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의 경우 중년기 가계는 연평균 1,518만원 (월평균 126만5천원)이었으나 노년기가계에서는 716만6천원 (월평균 59만7천원)으로 중년기 가계의 47.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재무비율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본 절에서는 재무비율을 통해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용한 재무비율과 그 분석결과는 < 표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3 > 재무비율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가계의 재정상태

재 무 비 율		Guideline	% meeting* (mean)				x ²	
			중 년 기 (N=166)		노 년 기 (N=711)			
소 비 율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 처분소득	<1.0	75.9%	75.9% (1.24)	62.0%	62.0% (1.63)	11.34***	
	유 동 성 비 율	Ratio 2) 유동자산/월지출액	>3.0	10.8	53.0 (19.26)	4.8	23.2 (7.01)	58.24***
		Ratio 3)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0.25	10.8	63.3 (11.83)	4.8	26.3 (5.17)	82.73***
	Ratio 4) 유동자산/순자산	>0.25	10.8	10.8 (0.16)	4.8	5.1 (0.04)	7.78**	
부 채 부 담 비 율	Ratio 5) 유동자산/총부채	>0.1	72.9	42.8 (1.92)	84.1	27.1 (0.65)	72.61***	
	Ratio 6) 총부채/순자산	<1.0	72.9	68.1 (0.37)	84.1	86.6 (0.07)	3.81*	
	Ratio 7) 실물자산/총부채	>1.0	72.9	71.1 (13.63)	84.1	81.6 (26.19)	18.67***	
자 본 축 적 비 율	Ratio 8) 투자자산/순자산	>0.2	49.4	10.8 (0.14)	23.2	6.2 (0.04)	4.43*	
	Ratio 9)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	49.4	47.0 (0.33)	23.2	21.5 (0.15)	44.99***	

* : %meeting이란 각 ratio의 준거기준 (guideline) 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을 의미함

1) 소득대비 소비비율로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초과지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ratio1은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로 조사대상 가계 중 준거기준인 1.0미만을 만족하는 비율은 중년기는 75.9%, 노년기는 62.0%로 나타났다. 중년기 가계의 경우 노년기 가계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노년기 가계의 38%가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들 가계의 매월 소득이 소비지출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의 낮은 수준으로 5가구 중 적어도 2가구가 초단기에 있어서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유동성 비율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단기 유동성 지표 (ratio2, ratio3) 중 하나와 장기 유동성 지표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를 유동성이 건전한 가계라고 정의하였을 때 이를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유동성 비율에서도 전반적으로 중년기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년기 가계에 비해 노년기 가계는 23~26%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금 준비가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ratio4의 경우 중년기는 10.8% 그리고 노년기는 5.1%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atio4의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 장·단기 유동성 비율을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3) 부채부담비율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능력을 나타내 주는 ratio5(유동자산/총부채)의 경우 중년기 가계가 노년기 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가계의 경우 중년기 가계보다 이자 및 원금의 상환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실물자산이나 순자산과 총부채와의 관계를 나타낸 ratio6과 ratio7을 보면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가계의 자산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자본축적비율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두 종류의 세부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구조내에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한 자산 축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본축적비율의 경우에도 중년기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노년기 모두 현재까지 축적된 투자자산의 비중 (ratio8) 보다 ratio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저축률의 유지 또는 상승으로 향후 투자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재무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4종류의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따라 농가를 재정상태가 건전한 가계와 불건전한 가계로 나누어 농가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다.

1)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한 로짓분석 모형에 대한 χ^2 검정 결과 의미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OLS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R^2 와 유사한 $\rho^2(\text{rho-squared})$ 는 0.41로서 이는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소득 대비 소비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의 41%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로 측정된 가계의 재정상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성별(여성),

1) ρ^2 는 로짓분석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지표로서 그 값은 0과 1사이에 존재하며 $\{1 - (\text{후기의 log likelihood 값} / \text{초기의 log likelihood 값})\}$ 으로 계산되며 회귀분석의 R^2 와 유사하다(Ben-Akiva & Lerman, 1989).

가구주교육수준, 동거가족수, 생활주기,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등이었다. 즉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초등졸 이하인 경우보다는 중등졸 이하인 집단이, 중년기 보다는 노년기에서, 동거가족수가 많고 총지출이 많은 가계일수록 초과지출로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고 총소득과 총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에서 사용한 로짓모형이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의 소속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가능성은 87.7%였다. 건전한 집단에서 이를 바르

게 예측할 확률은 92.4%이며, 불건전한 집단에서 이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78.9%였다.

2) 유동성 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동성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립한 로짓분석 모형의 ρ^2 는 0.69로서 이는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유동성 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의 69%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로 측정된 가계의 재정상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자산과 유동자산

〈 표 4 〉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 (N = 877)

독립변수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의 소속여부							
	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 비율		자본축적 비율	
	β	S.E.	β	S.E.	β	S.E.	β	S.E.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구주성별(남성) 여성	0.439*	0.215	0.978	0.637	1.030	1.154	0.608**	0.221
가구주교육수준 (초등졸이하)								
중졸이하	0.908*	0.430	0.391	1.049	5.396	218.35	0.140	0.344
고졸이상	0.578	0.549	2.825	2.018	5.857*	2.958	0.190	0.396
동거가구원수	0.180**	0.613	0.048	0.157	0.012	0.4228	-0.106	0.045
생활주기(중년기) 노년기	1.745*	0.767	0.618	1.0023	-27.24	236.84	0.143	0.355
가계경제변수								
총소득	-0.004***	0.0003	0.0001	0.0003	-0.0002	0.0004	4.53E-05	9.550E-05
총지출	0.004***	0.0004	0.0003	0.0002	0.0004	0.0017	-1.4E-05	9.092E-05
유동자산	-0.0001	0.0002	-0.005***	0.0008	-0.051**	0.0190	-0.001***	0.0001
총자산	-2.1E-06	7.81E-06	0.0009***	0.0002	-0.009***	0.0020	2.25E-06	5.099E-06
총부채	-7.3E-06	5.13E-05	-2.7E-05	8.814E-05	0.0077***	0.0020	5.20E-05	4.343E-05
상수	-1.7886	0.811	1.239	1.139	32.127	236.876	1.542	0.415
-2 Log Likelihood	593.94		104.59		29.57		727.48	
Model χ^2	417.99***		233.66***		615.19***		155.12***	
ρ^2	0.41		0.69		0.95		0.18	

() 안은 준거집단임. * p < 0.5 ** p < 0.01 *** p < 0.001

이었다. 총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유동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유동성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가계일 확률이 높다. 이는 농가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고정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에 총자산의 양이 많은 가계가 반드시 유동성이 높은 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유동성비율의 로짓 모형이 유동성비율로 측정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집단의 소속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7.6%였다. 또한 재정상태가 건전한 집단에서 이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68.2%이며, 건전하지 못한 집단에서 이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9.3%로 나타났다.

3) 부채부담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채부담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한 로짓분석 모형에 대한 χ^2 검정 결과 의미 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으며 p 는 0.95로서 이는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부채부담비율로 측정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의 95%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로 측정된 가계의 재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 교육수준과 총부채 유동자산 및 총자산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주 교육수준이 초등졸 이하인 가계 보다 고등졸 이상일수록 그리고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부담으로 측정된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집단에 속하는 확률이 높으며 총자산과 유동자산이 적은 가계 역시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Hira(1992)의 부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지불불능자의 대부분이 일반인 보다 소득이나 총자산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금융자산이 부채 보유 확률과 부채보유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성영애·양세정(199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채부담비율에서 사용한 로짓모형이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집단의 소속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9.6%이며, 건전한 집단을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9.7%였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집단을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9.1%로 나타났다.

4) 자본축적비율로 평가한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본축적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한 로짓분석 모형에 대한 χ^2 검정 결과 의미 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으며 p 는 0.18로서 이는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농가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의 18%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5 > 재무비율에 따른 집단별 소속여부에 대한 예측 확률

		기 대 도 수 (n)			확 륜 (%)
		건전한 집단	불건전한 집단	계	
소득대비 소비비율 관찰도수 (n)	건전한 집단	464	38	502	92.4
	불건전한 집단	58	218	276	78.9
	전 체				87.7
유동성비율 관찰도수 (n)	건전한 집단	30	14	44	68.2
	불건전한 집단	5	729	734	99.3
	전 체				97.6
부채부담비율 관찰도수 (n)	건전한 집단	663	2	665	99.7
	불건전한 집단	1	112	113	99.1
	전 체				99.6

이 비율로 측정된 가계재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과 유동자산이었다. 여성가구주 가계가 남성 가구주 가계보다 자본축적 비율로 측정된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계 내 유동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적정기준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과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본축적비율에서 사용한 로짓모형이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의 소속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79.6%이고, 건전한 집단을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31.3%이었으며 불건전한 집단을 바르게 예측할 확률은 96.0%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재무비율을 통해 평가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집단과 불건전한 집단으로 나누고 건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대비 소비비율의 경우에는 여성가구주일 경우에, 중졸 이하인 경우,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총지출이 많을수록, 총자산이 적을수록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가의 경우 자산의 증가는 유동성이 부족한 실물자산의 형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채부담비율의 경우에는 고졸이상인 집단이, 유동자산이 적을수록, 총자산이 적을수록, 총부채액이 많을수록 부채부담이 높아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축적비율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적을수록 자본축적 비율이 불건전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정상태의 유동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가의 경우 초과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과 자산의 부족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년기 가계의 경우 농가의 작목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농외소득원의 증대를 힘써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계재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기 가계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을 확보하여, 현금소득의 유입 빈도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농가를 위한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득과 채무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재무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계부 기록을 위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가 자산형태의 대부분이 고정자산이므로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이용한 노후대비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중·노년기 가계 모두 유동성비율을 충족하는 가계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실생활에서 현금의 부족과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갑작스런 소득이 단절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촌 생활지도사들은 재무상담 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기 재무설계시에는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 목표로 삼아 유동자산의 비중을 최소 25%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자산간의 재분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guideline)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재무상담가들이나 가정학자들이 사용하는 재무비율과 준거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한 점과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분석이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는 가정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에서 가장 주요한 재정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및 지출의 비율을 평가해주는 새로운 재무비율의 구성과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농가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비율 즉 자산과 소득 중에서 생산측면으로 재분배를 나타내는 비율 등이 제시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가 재무관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순미, 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정, 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 발표회 자료집, 37-63.
- 노자경, 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측정 및 관련변수 연구, 소비자학연구, 2(1) : 13-35.
- 민재성, 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박재윤, 1978, 서울 비근로자 가계의 저축행태, 경제논집 제17(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배무기, 1978, 서울근로자 가계의 저축행태, 경제논집 17(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성영애·양세정, 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성영애·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심영, 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양정선, 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채, 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7호.
- 정영숙, 1994, 도서지역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생활의 질 만족도 -한산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5(1), 57-69.
- 최현자, 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통계청, 1995, 도시가계연보.
- Ben-Akiva, M. & Lerman, S. R., 1989, *Choice Analysis*,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Bryant, W.K., 1986, Assets and Debts in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DeVaney, S., 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DeVaney, S., 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Garman, E.T. & Forgue, R.E., 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ing In Langreh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Hira, T.K.,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65-175.
- Langrehr, V.B. & Langrehr, F.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393-406.
-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Mason & Griffith., 1988, New ratio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Jornal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71-87.
- Marlow, J. & Godwin, D., 1988, *The*

-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 - 109.
- Prather, C.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 - 70.
- Radner, D. B. , 1987, Money Incomes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 - 28.
- , 1992,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55(3), 3 - 23.
- Sullivan, C. & Worden, D., 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
- Wasberg, C.A., Hira, T., & Fanslow, A.M., 1992, Credit card usage and consumer debt burden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 19 - 32.
- Yu, J., 1993, Determinants of household's asset/debt holdings and debt burdens, Proceeding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9 - 401.